

경북 “수출·투자확대 통해 글로벌 위상 확립”

수출기업협회 신년회 개최
맞춤형 수출전략 네트워킹 강화
초보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AI기반 산업 혁신으로 새 도약

경북도는 12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026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신년회 및 수출확대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 여권택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수출기업과 수출지원 관계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경북 수출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수출 전략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경북 수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경북도의 2026년 수출지원 시책 안내와 함께 수출 관계기관의 수출 확대 혁신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과 해외



경북수출기업협회 신년회 및 수출 확대 전략 설명회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장 진출 전략이 소개됐다. 2부에서는 우수 회원사에 대한 표창이 진행돼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 기반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수출확대혁신전략세미나에서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지원

사업 안내, 코트라 대구경북지원본부의 해외 수출지원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의 수출지원 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대구경북지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보험 활용 방안 등이 소개돼 참석 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해외 시장별·품목별 맞춤형 수출 지원과 디지털·온라인 수출 마케팅 강화, 물류와 환율 변동 대응 지원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수출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 초보기업 역량 강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026년 병오년은 속도와 도전, 전진의 기운이 필요한 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경북 수출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APEC을 통해 높아진 경북의 글로벌 위상을 실

질적인 수출 성과와 투자 확대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과 혁신이 경북 경제의 새로운 도약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조와 서비스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 현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인공지능 센터 지원과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는 2014년 10월 도내 132개 수출기업으로 출범해 현재 1,300여 개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수출기업 협의체로 성장했다. 협회는 해외시장 정보 공유와 수출 애로 해소, 기업 간 협업 촉진을 통해 경북 수출의 저변을 확대해 왔으며, 국제전시회 공동 참가와 해외경제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상담회, 수출 전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6년에도 경북 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n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

경주시는 12일 황성동 유림로13번길 일원에서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식을 열고 어르신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공간의 출발을 알렸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고령자 주거복지 사업으로, 총사업비 199억 원이 투입됐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과 입주를 완료했다.

복지주택은 지상 15층, 1개 동, 총 137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26㎡형 109세대(쉐어형 16세대 포함)와 36㎡형 28세대로 구성됐으며, 고령자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으로 설계됐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포항시는 오는 16일부터 2026년 카드형·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인 포항사랑카드의 첫 할인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연초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됐으며, 총 230억 원 규모를 9% 할인율로 판매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500억 원 늘려 총 3,5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상시 판매 기간에는 포항사랑카드를 9% 할인하고, 명절에는 포항사랑카드와 지류형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베트남서 고교생 20명 봉사활동 ‘구슬땀’

경북교육청 1~2학년 8일간 참여
글로벌 시민의식·리더십 등 함양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 일대에서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하는 ‘2025학년도 해외 학생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학생봉사활동은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개 모집과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와 생활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현지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활동은 팀별 봉사 과제 수행과 현지 기관과의 협업, 문제 상황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핵심 리더십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

을 두고 있다.

특히 베트남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연합 봉사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참여 중심 글로벌 시민교육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주요 봉사과제와 교류 프로그램은 SOS 아동센터와 투득칼리지, 쯔엉반티고등학교 등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환경 개선과 미화 활동, 학용품과 물품 기부, 미니 축제와 한국 전통문화 체험 부스 운영, 베트남 대표 문화 관광지에서의 환경 정화와 글로벌 환경·문화 캠페인 등에 참여하며 인권과 평화, 상생의 가치를 체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상호 문화 소개와 체험 행사, 컬처박스 교환, 연합 봉사 활동, 한국어 교육 재능기부 협의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경남 창원시 이·통장연합회 특례시 캠페인.

/창원특례시

창원 “특례시 권한이양·재정확보 집중”

4대 중점과제 성과 창출 주력

창원시는 2026년을 특례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핵심 시기로 설정하고,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동남권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행보다. 창원시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받은 뒤 꾸준히 권한을 넓혀왔다.

그간 성과로는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을 통해 연간 1만명에게 149억 원을 추가 지원했고, 소방안전교부세

50% 이상 증액으로 5년간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항만 운영 권한 확보로는 2년간 32억원, 환경 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전액 세입화로 2년간 9억 원을 조성했으며 12개 비영리민간 단체에 공익활동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히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창원시가 동남권 거점도시로서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예술 중심 뉴욕서 ‘K-수묵 세계화’ 특별전

전남도 한국문화원서 30일까지 개최

전라남도가 수묵 예술의 다양성을 통해 케이(K)-수묵의 세계화라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뉴욕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오는 30일까지 21일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뉴욕 수묵 특별전 개최한다.

‘뉴욕, 뉴잉크(New York, New Ink)’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케이-수묵의 확장성을 알리고 차기 연도에 개최될 수묵비엔날레의 성공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해외 수묵 전시 사업 일환이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열린 개막식에

선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 론김, 에드워드 브론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유시연 뉴욕호남향우회장 등 주요 내빈과 예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남도 수묵의 수준 높은 작품성과 현대 미술의 다양한 매체로 융합될 수묵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부대행사로 한복의 선과 주름이 수묵화처럼 우아하게 펼쳐지는 모습을 연출한 한복 퍼포먼스, 절제적이고 창조적인 수묵 정신을 체험하기 위한 정광희 작가의 일회 굿기 시연도 펼쳐졌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청도군, 공모사업비 2260억 ‘최대 규모’

역대 최소 군비 부담률 9.6%

청도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2025년 총 4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역대 최대 규모인 22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500억 원대의 열악한 자체 수입과 한정된 교부세 구조로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22년 757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 1,373억 원, 2024년 1,566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260억 원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최대 공모사업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군비 부담률은 2022년 39%에서 2025년 9.6%로 크게 낮아지며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러한 재정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청도군은 2026년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500억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청도(경북)=김준한 기자

울산 울주군

중소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울산 울주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900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군은 12일 군청에서 박용운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장과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운영돼 온 것으로, 자금난에 처한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기업은행 등 11개 협약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군이 이자 차액 3%를 2년까지 지원해준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